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8. 12. 24.(월) 총 5매(본문5)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권미정, 주무관 김을, 조종관 ☎ (044)201-4204, 4181, 4182, 4183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과장 정의현, 사무관 최진호, 주무관 조계웅 ☎ (044)201-4244, 4248, 4254	
	항공운항과	담당자	·과장 김상수, 사무관 최수영, 주무관 서재윤 ☎ (044)201-4259, 4273, 4261	
보 도 일 시		2018년 12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18년 항공 일자리 23% 증가...9개 항공사 4천여 명 신규채용 조종·정비·객실 분야 신규 채용은 33%↑...항공안전 강화서비스 향상 기대

- ◆ 노선 확대, 인천공항 T2 개장 등으로 '18년 일자리 1만 4천여 개(잠정) 창출
- ◆ 항공일자리 지원센터 맞춤형 멘토링, 영어 면접특강 등 만족도 높아
- ◆ 국토부-훈련기관-항공사 간 협업...先선발 後교육 198명 조종사 훈련 중
- ◆ 저소득층 조종사 꿈 이어줄 희망사다리, 하늘드림재단 출범(12.14)
- ◆ B737 기종특화 전문정비훈련 프로그램 1기 이수자 85% 취업

①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제 노선확대(47개)와 인천공항 T2 개장('18.1) 등으로 항공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도 약 1만 4천여개** (잠정)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 올해는 11.1에 항공여객 실적 1억 명 돌파, '18년말까지 1억1,773만 명 예상(잠정)

** 9개 항공사 약 4,142명 채용, 인천공항 T2 운영·복합리조트·물류단지 등 4,245명, 드론 약 2천명(활용 업체당 2.5명 고용유발 추정), 인천·김포·김해 등 공항시설 확충 약 3,013명(예산투입 10억당 12.1명 고용유발 추정) 등

- 항공운송업은 우리나라 전체산업 대비 평균임금이 약 1.4배 수준으로 특히 항공사의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지상직 등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각광 받는 일자리로 손꼽힌다.

* 항공운송업 임금수준은(월 487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임금(월 344만 원)의 1.4배('17년)

- 9개 항공사는 '17년(약 3,375명) 대비 약 23% 증가한 4,142명*을 '18년 신규채용해 항공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 대한항공 1,083명, 아시아나 509명, 제주항공 719명, 진에어 437명, 에어부산 365명, 이스타항공 352명, 티웨이항공 485명, 에어서울 131명, 에어인천 61명

- 실제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채용을 '17년(2,473명) 대비 '18년 약 33%(3,291명) 늘려 항공안전 강화와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 ('18년 신규채용) 조종사 935명, 정비사 613명, 객실승무원 1,743명, 지상직 등 851명

- 한편, 한국에 취항하는 주요 외항사들도 '18년에 약 320여 명의 한국인 객실승무원을 신규 채용했다.

[표1] 항공사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항공사	'17년 신규채용	'18년	
		신규채용	현원 ('18.12)
대한항공	633	1,083	18,669
아시아나항공	515	509	9,441
제주항공	667	719	2,627
진에어	388	437	1,972
에어부산	283	365	1,290
이스타항공	285	352	1,458
티웨이항공	397	485	1,836
에어서울	192	131	446
에어인천	15	61	108
계	3,375	4,142	37,847

* '17년 9개 항공사 현원(35,864명) 대비 '18년 순증된 인원은 1,983명(신규채용, 은퇴 등)

- 인천과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중인 한국·인천공항공사도 '18년에 정규직원 355명(한국 214명, 인천 141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390명(한국 649명, 인천 1,741명) 진행하여, 일자리의 '질' 개선에도 노력했다.
 -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제2터미널 개장('18.1.18) 및 복합리조트 개장 등으로 '17~'18년에 걸쳐 약 1만 4천 5백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18년에도 약 4천2백여 명**을 채용했다.
- * ('17~'18년) T2 면세점·상업시설 8,094명, 기내식·조업사 1,030명, 물류단지 2,121명, 복합리조트 3,258명 등
- ** ('18년) 주변지역 개발 1,282, 물류단지 1,161, 공항운영 822, 기내식·지상조업 등 980명 등

[표2] 공항공사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협력사·자회사) 현황 (단위 : 명)

		'17년 신규채용	'18년 신규채용	현원('18.12)
공사 정규직	한국공항공사	198	214	2,209
	인천공항공사	118	141	1,366
소계		316	355	3,575
		'17년 전환	'18년 전환	'20년까지 전환 예정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	한국공항공사	588	649	2,612
	인천공항공사	1,004	1,741	7,040
소계		1,592	2,390	9,652

2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와 취업준비생간에 맞춤형 연계지원을 위해 지난 9월 6일 항공일자리 취업센터(인천공항 소재)를 오픈했다.
- 객실승무·항공관제·공항운영 등 7개 분야 전·현직자로 구성된 12명의 멘토들의 취업 컨설팅과 영어모의면접,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준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 항공일자리 포털(www.air-works.kr)을 통해 국내외 항공관련 기업 채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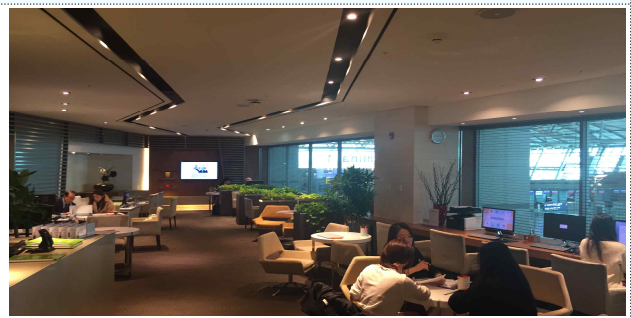
* '18.12.19 현재 98개사의 취업 정보 게시(조종 13, 객실 3, 운항3, 제작·정비 28 등)

[참고] 항공일자리 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사례

▶ 이00씨(20대, 여)는 지난 9.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항공일자리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항공일자리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멘토들에게서 코칭을 받고 12월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취업에 성공했다. 이씨는 “실제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노련한 멘토들의 면접노하우 전수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적극적 추천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힘



항공일자리지원센터의 영어면접 특강



항공일자리지원센터의 개별 멘토링

3 취업연계형 항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 아울러, 올해부터 국토부-훈련기관-항공사가 협업하여 先선발 後교육* 제도를 7개 항공사에 도입해 '18년에 198명을 선발했다.

* 조종사 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하여 2년간 교육 후 부기장으로 채용, 高비용 '비행낭인'을 예방하고, 항공사가 원하는 전문인력을 적기 공급

-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서민층의 희망사다리가 되어줄 하늘드림재단도 최근 출범('18.12.14)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시작된다.
- 한편, 현장실무 투입이 가능한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해 3개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B737 기종 특화 정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기 수료생 40명 중 34명(약 85%)이 항공사 취업에 성공했다.

[참고] B737기종 특화 정비인력 교육훈련 이수자 취업사례

전문기관	'18년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현황	주요 취업사례
A 전문학교	B737 기종한정교육 (이수인원 13명 중 11명 취업)	박00씨는 A항공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사 면허취득과 어학을 병행하며 항공사 취업의 꿈을 향해 나아가던 중 B737 기종과정에 입과하여 수료후 제주항공에 취업성공
B 전문학교	B737 기종한정교육 (이수인원 15명 중 15명 취업)	윤00씨는 학교 졸업 후 B737 기종과정 수료 후 바로 티웨이 항공에 합격하여 실습 중이며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정비업무를 시작할 예정
C 전문학교	B737 기종한정교육 (이수인원 12명 중 8명 취업)	이00씨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 및 B737 기종과정을 수료하여 이스타항공에 취업 성공! 지원 당시 신입사원으로서 고령(만33세)이었으나, 동 과정 이수를 통해 취업에 성공함

- 국토교통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시장의 성장과 함께 항공사·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면서,
 - “현재 신규 항공사업 면허 심사를 진행중에 있고,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항공정책과 권미정 서기관(☎ 044-201-41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